8-1 **후기 색면회화(Post Color Field Painting)**

**클레멘트 그린버그** (중요!)

– 1964년,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

<후기회화적 추상 Post Paintely Abstraction)> 기획.

미술가 : 루이스, 놀랜드, 프랑켄셀러, 켈리, 프랭크 스텔라, 샘 프란시스 등

특징 : 화면의 공간으로 착각될 수 있는 어떠한 깊이도 용납하지 않는다. 평평한 표면을 지닌 캔버스와 완전 일치되면서 자유로운 색채 강조.

\*\* 추상표현주의를 계승한 2세대의 아류들이 아니고 독창적으로 색면추상을 정립.

캔버스에서 색면으로 자유로운 색채감각 보여줌.

평면성과 물질성을 향해서 모더니즘 미술이 발전을 한다. 그 완성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젊은 미술가들(추상표현주의) 모더니즘 미술이 완성되었다. 는 계보 만든 사람 – 클레멘트 그린버그

우리가 모더니즘 미술 정의할 때 그린버그의 생각을 상당부분 받아들임.

41) **프랭크 스텔라 <뉴 마드리드>** / 제스퍼 존스 <흰바탕 위의 기> 1955 //

차이점 : 오른쪽 미국 국기 구상적. 왼편 추상적. 프랭크가 제스퍼 존스의 이 작품 보며 감동받음. 줄무늬만을 가지고 와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됨.

존스 : 줄무늬가 있음으로써 평면이 드러남. 프랭크가 관심을 가진 것은 중심이 없고, 위계질서도 없고 완전한 평면. 표면을 보여준다.

프랭크 스텔라 <턱시도 공원> // 프랭크 두 작품의 특징 : 줄무늬만을 해놓으니 어떠한 이야기도 떠오르지 않음. 표면을 드러내니 탈중심성, 전면성(표면을 보여준다), 비개성성. 무표정(무표정성)하고 단일화(단일성)되고 중립적이고 탈중심적이고 탈인간적이고 전면적이고 비개성적임.

.

모더니즘 미술은 평면성과 물질성으로 나아가면서 형식성(미술을 위한 미술). 미술 그 자체에 몰입. 냉소적임(정치 등에). 평면성과 물질성. 회화 그 자체의 조건에 몰입. 현실에 무관심x, 단지 참여 안할뿐.

스텔라 : 당신이 보는 것이 보는 것이다. ->니가 봐서 많은 생각을 해라.

평면성과 물질성 통해 표면 캔버스의 스크린.

회화라고 하면 조각하고 다름. 깊이가 없음. 그런데 옛날 르네상스 사람들은 명암 넣어 삼차원으로 표현. 자연 많이 그림. 그런데 현대 미술에 오게되면 19c후반부터 20c중반까지 회화가 회화의 존재임을 드러내고 싶다. 자연, 문학, 조각하고 섞이고 싶지 않다. 이 것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화가가 무언가 하기는 해야 함. 그러기 때문에, 평평한 표면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깊이감이 없을 수 있을까?

줄무늬가 캔버스의 틀을 따라서 간다. **캔버스의 틀 강조.**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회화만의 독립된 세계. 캔버스 그 자체를 보여주려 함. 정신성을 표현하는 것 때문에 관념적으로 변하게 됨. 이 안에는 위계질서 없다(중심이없다), 전면성, 비개별적(보편성)

물질로의 환원이다.

42) 프랭크 스텔라 <인도의 황후>, <델루드 화합물>

틀을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 캔버스가 사각형이 일반적인데 스텔라는 t자형 등 🡪변형캔버스.

캔버스의 형태->회화의 형태로 나아가게 됨.

틀을 강조한 사람은 세잔느. 세잔느 - 조끼입은 소년 (1890) 이 당시 추상x

회화는 자연의 세계와 분리된다. 아이를 닮게 그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나름대로 내적 법칙을 가지고 새로운 구성으로 구려야한다.(형태의 자율성). 유난히 긴 팔, 주변의 것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길다. 캔버스의 틀을 강조하고자 함은 세잔느가 먼저 함. 이 사각형 틀에 형태와 색채를 조화시킬까, 어떻게 구성시킬까 고민. 독립을 시켜서 새로운 세계로 만들려고 함.

세잔느 이전의 사람 앵그르 <드 브로그리 왕자비의 초상> - 어떻게 닮게 그릴까 고민. 회화가 자연에 종속. 독립x. 부수적. 2차적.

장르의 순수성. 자연으로부터 독립. 자연으로부터 독립되기 위해서 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자연히 강조. 모더니즘 미술은 평면성, 물질성으로 나아가게 된다.

너무너무 캔버스 강조하다 보니, 변형된 캔버스 만들었고, 70년대 넘어가면서 캔버스 너무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깊이감이 다른 측면 보게됨..? 회화가 아니고 부조같이 보임.(회화와 조각이 섞임).

1970년대 들어가면서 모더니즘 미술 끝.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게 됨. 결국 모더니즘 미술의 원리에서 이탈.

44) 책 마네와 모더니즘-마네를 모더니즘의 선구자로 올림.

마네 <올랭피아> // 평평한 여인의 누드. 평면성. 거친 붓터치, 물감. 평면성과 물질성이 보여짐. 형태와 색채의 조화. 이 여자를 닮게 그리는 것보다 형태와 색채의 조화. 구성이 중요함을 마네가 가르쳐줌. 올랭피아 이후로 현대미술은 회화는 회화로, 조각은 조각으로, 문학은 문학으로 장르가 순수하게 나눠짐. 회화는 평면성과 물질성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됨. 사회주의적인 사고(위계질서 없고, 중심이 없고) 담고 있다. 역설적으로 엘리트주의적(백인남성중심).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면~~~~~~~~~~

**2차 대전 이후의 추상 – 앵포르멜 미술(L’Art Informel)**